

# 치 사

출판을 통한 불교문화 선양을 위해 일선에서 진력을 다하시는 출판인들을 비롯하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덕을 나누기 위해 무루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교 출판인에게는 상업적 성공과 개인의 영예를 넘어 ‘문서포교’라는 공공의 사명이 지워져 있기도 합니다. 불교 출판인들은 힘들지만 그 자랑스러운 사명을 스스로 짊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려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불교계 출판은 영세한 자본, 기획 환경의 제약, 저자의 발굴 등, 어려운 여건들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기에 불교출판문화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출판문화협의회는 신심과 원력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헌신의 공덕으로 불교출판 활성화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불자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밝은 희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불교출판인들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어렵고도 무거운 책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질에 우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기에 관성처럼 쉽게 지나쳐 버리는 전통의 가치와 불교 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인성의 중심

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일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걸어오고 또 나아가야 할 여정에서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이 성성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걸음을 지속해 주기를 바라며, 지난 세월을 반추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불교출판문화협회 지홍스님과 불교출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9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자와 문서포교를 위해 한해의 노고를 다하신 출판인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2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